

돼지의 질병과 대책

신 의 수

훌륭한 혈통의 돼지나 돈사 내외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좋은 환경속에서 만족한 사양 관리된 하였다 하여도 방역을 소홀히 하면 뜻하지 않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돼지는 거의 집단 사육되는 경제성 동물이어서 그들에 대한 인위적인 보호 육성이 필요하며 또 방역 방법의 성실여부는 축산진흥을 좌우하는 관건이라 하겠다.

방역(preventive medicine)이란 말은 전염병의 발생 침입을 미리 막는다는 뜻을 지녔으며, 평소에 돼지 개체의 저항력을 높여 주기 위하여 적당한 운동과 영양공급을 원활히 하고 합리화할 것이며 주위 환경의 위생적 보안을 마련해 주는 한편, 수시로 소독을 하여 병원체의 침입 기회를 사전에 방지 해야될 뿐 아니라 계절에 따라 일령에 맞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일들이 방역방법에 속한다고 하겠다.

1. 백신

백신은 일반적으로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면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오히려 발병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시기, 부위, 정량 사용을 해야 하며 특히 빠진 돼지가 없도록 해야한다.

2) 예방접종시 준수사항

- ① 사용하는 주사기는 끓는 물에 소독한 다음 사용한다.
- ② 희석된 백신은 잘 흔들어서 신속히(1~2시간)완전히 사용한다.
- ③ 질병의 감염이나 잠복기에 있는 돼지는 접종하지 않는다.

표 1. 예방접종방법

구 분	백 신	부 위	용량	비 고
30~40일령	돈콜레라	근 육	10ml	
60~70일령	돈콜레라	"	1 "	
	돈단독	피하및근육	2 "	
후보돈(7~8개월령)	돈콜레라	근 육	1 "	
	돈단독	피하및근육	2 "	
	AR	근 육	2 "	
임신69일령	AR(1차)	"	2 "	
" 79 "	TGE(1차)	"	2 "	
" 99 "	AR(2차)	"	2 "	
" 100 일령	TGE(2차)	"	2 "	
응돈 매년3월	돈콜레라	"	1 "	
	돈단독	피하및근육	2 "	
중돈및육성후보돈 매년4월	일본뇌염(1차)	"	1 "	
중돈및육성후보돈 매년5월	일본뇌염(2차)	"	1 "	
응돈 매년9월	돈콜레라	근 육	1 "	
	돈단독	피하및근육	2 "	
모돈분만사 20일	돈콜레라	근 육	1 "	이 유 전 10일
	돈단독	피하및근육	2 "	

- ④ 기생충이나 질병 감염시에는 치료한후 접종해야 한다.
- ⑤ 일단 희석된 백신은 일시에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것은 소각 및 매몰한다.
- ⑥ 예방 접종후 최소 2시간까지는 이동이나 환경의 변화 사료의 변경등은 삼가 해야 한다.
- ⑦ 백신의 희석 및 접종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 ⑧ 백신 용액이 접종부위 외의 다른곳에는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 백신은 제조일, 유효기간, 제조회사등을 확인 해야 한다.

⑩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5℃의 냉암소에 보관되어진 백신을 사용해야 한다.

⑪ 백신의 이동은 얼음을 넣은 상자(아이스박스)로 하는 것이 좋다.

⑫ 백신접종된 돼지는 표시(V)를 해야 하며 절대 빠진 돼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이 위 12개항을 준수할 때 완전 무결한 백신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구 충

돼지는 기생충의 영향으로 발육이 불량해지고 또 사료 이용성도 떨어지므로 기생충 구제에 힘써야 한다.

기생충 예방의 요결은 일령에 맞는 구충과 돈방 및 돈사주위 운동장, 특히 배수로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항상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표 2. 구충일령

50일령	구 충	비 고
후보돈(7~8개월령)	유비료10g	분만에정15일전
분만사 입주 3 일전	린 탈10g	
웅돈 매년(4월)	린 탈10g	
웅돈 매년(10월)	린 탈10g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의 증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료는 먹으나 힘이 없다.
- 코의 빛깔이 회갈색으로 된다.
- 눈꼽이 낀다.
- 귀가 처지고 차갑다.
- 야윈다.
- 털이 일어선다.
- 항문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져서 설사변을 흘리게 된다.
- 설사 회수가 많다.
- 피부가 창백해 진다.

기생충은 예방이 첫째이며 돈사 내외에 각종 충들이 번식할 수 없도록 깨끗이 해야될 뿐 아니라 특히 분만사 급수기(워터캡) 주위를 매일 깨끗이 해야 한다. 또 감염된 돼지는 즉시 격리를 시켜 별도 사육해야 될뿐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작업도구도 격리 시켜야 한다.

3. 건강한 상태의 돼지

품종, 성별 연령등 개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돼지는 건강한 돼지다.

- ① 품종간 또는 연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고 있을때
 - ② 식욕이 왕성하여 급여한 사료를 다 섭취할때
 - ③ 보행상태가 활발할때.
 - ④ 안구에 활력이 있고 빛이날때
 - ⑤ 콧등이 항상 습하고 소량의 콧물을 유출하고 있을때.
 - ⑥ 꼬리를 항상 위쪽으로 말아올리고 있을때.
 - ⑦ 똥의 상태는 적당한 수분을 함유한 똥이나 모양이고 악취가 없을때.
 - ⑧ 오줌은 무색이며 냄새가 없을때.
 - ⑧ 돼지의 체온은 성돈이 37~39℃이며 운동이나 수송직후에는 40℃까지 상승하지만 30분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온다. 자돈은 체온이 높은편이어서 보통 38~40℃일때.
 - ⑩ 호흡수는 돼지가 안정상태에 있을때 코앞에 손을 대어 1분간 있을 경우 성돈은 8-10회 자돈은 14-18회 일때
 - ⑪ 맥박수는 대퇴부 동맥이나 꼬리부분 동맥에서 측정하며 성돈은 1분에 60-70회 자돈은 70-80회 일때.
- 단, 돼지가 흥분하거나 주위가 산만할때는 상승한다.

1) 질병의 양상

동일 돈방에 같은 증상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염병 혹은 중독증이라 생각해야 한다.

① 전염병

일반적으로 높은 열을 내지만 24시간이내에 급사하는 예는 드물고 초발된 돈방에서 옆돈방으로 전염되며 병 경과에 따라 여러가지 증상을 나타낸다.

○대책

●발병돈은 격리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작업 도구도 격리시킨다.

- 관정에 따라 도태 시킨다.
- 넓은 공간에 방목시킨다.
- 적정 온도를 유지 시킨다.
- 돼지가 좋아하는 사료를 이용하여 먹인다.
- 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준다.
- 수의사에게 연락하여 치료한다.
- 무엇보다 세심한 관찰과 정성이 더욱 필요하다.

② 사료중독

대부분 발열치 않고 단시간내에 폐사하는것이 보통이다.

○대책

- 먹다남은 사료는 수거하여 매몰한다.
- 타 돈방의 돼지는 자세히 관찰 조사한다.
- 동일 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타 양돈장과의 연락을 취하여 알아본다.
- 소독시 소독액이 급이기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료를 두수·체중에 맞게 급여하여 일시에 다 섭취하도록 하며 급여 회수를 늘인다.

2) 연령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연령이 적은 돼지일수록 전염병에 걸리기 쉽고 폐사율도 높다. 성돈은 특별한 전염병을 제외하고는 감염율이 낮고 감염되어도 회복되는 예가 많다.

부되는 예가 많다.

3) 계절적인 관계

일정한 계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예가 있는데 그 원인은 병원체의 독력변화, 사료의 변화, 관리상의 변화 혹은 돼지 개체의 생리적인 변화에 의한다.

4. 증상에 대한 관찰방법

1) 식욕 및 원기

식욕부진 및 전폐등 식욕상의 이상이 있는 돼지는 질병의 경과와 정도를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세균감염으로 발병하는 질병은 발열과 동시에 식욕이 없어지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초기에는 열이 있지만 식욕에는 별 이상이 없는예도 있다. 즉 식욕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기부족과 동작에도 이상을 관찰할 수 있다.

2) 발 열

발열은 거의 대부분은 돼지 전염병에 있어 제일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써 병원체가 혈중에 이행하여 중추신경계통을 흥분시켜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나 사료 중독에 있어서는 거의 발열하지 않는다.

3) 눈의 증상

●충혈 - 일반적으로 급성 전염병은 병초부터 심한 충혈을 가져온다.

●눈꼽 - 폐염, 독소플라즈마병, 돈콜레라, 돈단독, 위축성비염등에 있어서는 심한 눈꼽이 낀다.

●안구의 동요 - 급성 뇌염증상이 있을 때에는 안구의 동요가 심하다.

●시력감퇴 및 실명 - 독소플라즈마병에서 흔히 볼수 있다.

4) 피 부

색, 상태, 발진의 유무.

5) 기 침

폐염증상의 일종으로 유행성폐염, 폐충, 인푸 렌자, 톡소플라즈마등이 주로 폐염 증상을 나타 내며 기침을 하지만 돈콜레라에 있어서도 기침 을 한다.

6) 배설물

오줌의 색, 회수, 변비, 설사의 정도와 색깔, 냄새, 혈액혼입 여부, 설사는 전염병이나 비전 염병에서도 볼수 있다.

주로 설사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 전염병

전염성 위장염, 콜레라, 살모넬라증, 대장균 증, 돈저리, 기생충증 등.

● 비전염성

영양장애, 중독, 모돈의 유질변화등.

7) 구토증상

과식, 냉하거나 뜨거운 사료를 접했을때 혹은 세균성 중독증에 감염되었을 적에는 토한다. 전 염성 위장염, 돈단독 감염시

8) 신경증상

전염병중에는 병원체가 중추·말초 신경등에 서 증식되는 예가 있어 이와 같은 질병에 있어 서는 특이적인 신경증상을 나타낸다.

신경증상은 침울, 흥분, 발광, 마비, 경련, 지각 과민, 선회운동등을 말한다.

일본뇌염, 광견병, 돈콜레라 등은 의식장애를 가져오고 파상풍, 톡소플라즈마증등에서는 운동 장애를 가져오는 신경증상을 나타낸다.

5. 발병 발생 방지 대책

- 깨끗하고 신선한 물과 사료를 급여해 준다.
- 돈사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
- 온도·습도·환기량을 일령에 맞게 적정수 준으로 유지 시킨다.

● 백신 및 구충은 일령에 맞게 정기적으로 빠 짐없이 실시한다.

●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철저히 해야 한 다.

● 외분균(질병)침입 방지를 위해 출입자소독, 차량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6. 전염병 발생후의 처리 방법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꼭 지 켜야 한다.

① 병돈이 생기면 무턱대고 치료할 것이 아니 라 수의사에게 연락하여 위임해야 된다.

② 법정 전염병인 돈콜레라, 독단독등의 의심 이 있을 경우 곧 당국에 신고하여 그 지시를 따 라야 한다.

③ 발생돈은 도살하여 그 시체를 소각하는 것 이 좋다. 땅에 묻을 경우 응분의 소독처리가 필 요하다.

④ 전염병이 발생한 돈사는 바닥부터 천정까 지 말끔이 청소한 뒤 소독하고 몇일뒤 2차 소 독을 한 다음 일정기간 버려 두는 것이 좋다.

⑤ 깔집이나 똥은 소각하고 오줌통이나 배수 구에는 소독약을 붓는다. 사료통, 삽, 빗자루등 관리도구와 관리자의 피복및 신발등도 소독을 해 야 한다.

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소의 사료 급여 나 환경개선에 노력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 있 는 건강돈을 만드는 것이다.

평소 사료를 충분히 먹이고 부식초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돈 일지라도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의 막을 수 없는 병도 있다. 그래서 예방주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돈콜레라, 돈단독, 일본뇌염등은 반드시 주사 를 하여 자기 돼지는 물론 다른 양돈가에게도 피 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식이다.